

조달청 잡음 2題

군수품 조달청 이관에 뿔난 中企 “저가입찰, 품질저하 야기”

중기중앙회 국방조달위 기자회견

방사청 기준 맞추기 위한 투자 ‘무용지물’ 관련 전문성 등 부족... 각종 문제 불가피 年 60억 조달 수수료 물어야... 예산 낭비



중소기업중앙회 국방조달위원회 김형석 위원장(가운데)이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정부가 군에서 쓰는 피복, 급식, 유류 등에 대한 조달을 내년 1월1일부터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이관기로 한 가운데 관련 중소기업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전투를 하는 군인들이 쓰는 특수한 성격을 가진 군수품을 전문성 없는 조달청에 넘길 경우 저가 입찰로 품질 저하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수요처인 군은 60억원 정도로 추산되는 조달 수수료를 추가로 물어야 해 예산 낭비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점을 제기하면서다.

무엇보다 관련 제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의 경우 그동안 방사청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적지 않은 비용을 투자한 터여서 조달청으로 이관시 이같은 노력이 무용지물이 될 것이란 걱정이다. 또한 군인들의 급식에 활용하는 각종 식품은 자칫 유통시기를 놓칠 수 있어 문제가 될 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국방조달위원회는 3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군수품의 조달청 이관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형석 국방조달위원장은 “50년 가까이 군수품을 전문으로 조달했던 경험이 있는 방사청에서 군조직과 유기적 협조가 어려운 조달청으로 업무를 이관할 경우 평시나 전시나 여러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의 경우 식품, 의류, 유류 등을 전투기, 미사일 등과 같이 군수물자로 분류해 미국방조달본부에서 조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관을 계획하고 있는 품목은 급식, 유류, 장구류, 일반장비 등 무기류를 제외한

3112개로, 금액으론 연간 1조1000억원 상당에 달한다.

중기중앙회 국방조달위원회에는 15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속해 있고, 여기엔 약 400곳의 중소기업들이 군수품 조달을 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기업들은 조달청이 이들 군수품 조달을 맡을 경우 0.37~1.07%의 조달청 수수료를 감안할 때 연간 60억원의 국방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들 수수료는 수요처인 군이 부담해야 한다. 기존 방사청이 업무를 했을 때 수수료가 없었다.

특히 방사청이 2007년부터 양질의 제품 조달을 위해 별도의 적격심사기준을 도입, 활용해왔지만 업무를 넘겨받는 조달청이 ‘저가 우선’의 조달방식을 택할 경우 품질 저하도 뻔하다는 게 관련 기업들의 목소리다.

한국육가공조합 정영표 이사장은 “라면이나 주스류 등을 제외한 식품은 변질될 우려가 커 급식부대와 긴밀한 협조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달해야 하는데 이를 조달청이 관장할 경우 문제가 생겨 결국 급식장병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토로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무선마이크... LED실내조명등... 보행매트 조달청 원산지 확인 ‘구멍’

김영진 의원, 국감자료

위탁 업무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소홀 “위반 사례 봇물... 원산지 확인 강화해야”

조달청이 위탁하고 있는 다수공급자계약(MAS)제도의 ‘원산지 확인’이 다른 업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AS는 다수업체가 참여해 정부 조달 물품을 다양화하는 동시에 수요기관 선택권을 넓히고 진입장벽을 낮춰 중소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계약체결 이후 납품업체간 가격 및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다수공급자계약 위탁업무 최종 완료 보고’ 자료에 따르면 원산지 확인은 2016년 128건 완료(완료율 10.7%), 2017년 114건 완료(“ 11.3%), 2018년 188건 완료(“ 31.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협상품목검토’ 업무는 2016년 22만 5969개 품목(완료율 205.4%), 2017년 22만 4141개 품목(“ 172.3%), 2018년 16만 961개 품목(“ 140%)을 수행했다.

또 ‘적격성 평가’의 경우 2016년 1만 3877개 품명(“ 198.2%), 2017년 9843개 품명(“ 135%), 2018년 6977개 품명(“ 97.7%)은 계약보다 높은 실적을 보였다.

조달청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사단법인 정부조달마스협회는 MAS와 관련된 위탁용역을 통해 계약 물품의 ‘적격성 평가’, ‘협상품목검토’, ‘중간점검’, ‘원산지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이 중에서 ‘원산지 확인’은 질 낮은 외산자재 사용제품, 외산 완제품 등을

(다수공급자계약 위탁업무수행 현황)

구분	세부과업 내용	계약(A)	완료(B)	완료율(B/A, %)
'16년	적격성 평가*	7,000	13,877	198.2
	협상품목 검토**	110,000	225,969	205.4
	중간점검***	9,000	8,191	91.0
	원산지확인****	1,200	128	10.7
'17년	적격성평가	7,293	9,843	135.0
	협상품목 검토	130,103	224,141	172.3
	중간점검	9,691	10,119	104.4
	원산지확인	1,012	114	11.3
'18년	적격성평가	7,000	6,944	97.7
	협상품목 검토	115,000	160,961	140.0
	중간점검	9,000	15,164	168.5
	원산지확인	600	188	31.3

*세부품목, ** 품목, *** 세부품목, ****건.

/자료=2019 조달청 국감

통해 납품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주재료의 입찰과 상황 등을 확인해 계약규격서에 따라 원산지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업무로 다른 업무에 비해 중요도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은 위탁업체에서 1차 검토를 한 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선 계약부서와 관련 조항, 조달품질원이 합동으로 점검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2017년 이후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중에서 원산지 확인 용역사업이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원산지 위반 적발이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무선마이크, LED실내조명등, 보행매트 등 9건을 적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조달과정에서 원산지 위반이 끊임 없이 적발되고 있기 때문에 다수공급자계약 용역사업에서 원산지 확인작업을 소홀히 하면 절대 안된다”면서 “최근엔 종합쇼핑몰의 공급 비율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원산지 확인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중기부, 日규제 피해 소기업에 1100억 지원 집 청소·빨래 대행 스타트업 ‘우후죽순’

최근 일본 수출규제조치와 경기침체로 업황 부진을 겪고 있는 여행·관광업종과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매출 감소 등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11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이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여행·관광업계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 자금을 편성하고 10월부터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중기부는 여행·관광업종에 총 1000

억원의 정책자금을 배치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진흥법상 영세관광사업자에게 300억원을 지원하던 것에 대상을 확대해 중기부에서 관광 등과 연계된 업종에 종사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700억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여행과 관광업 등을 영위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보증 지원된다.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요율을 최대 0.4%포인트까지 인하하고, 최대 7년까지 보증상환기간도 늘려 설정한다.

/배한님 기자 ericbae1683@

나홀로족·맞벌이 가구 늘면서 O2O플랫폼 가사시장으로 확대 가사도우미 당일 연결 서비스도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늘면서 집안일도 O2O(온라인·오프라인 연계) 플랫폼 노동의 영역으로 들어왔다. 기존에 직업소개소나 지인 추천 등으로밖에 구할 수 없었던 가사도우미를 쉽고 빠르게 고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가격이 나우미 평점도 투명해지면서 사용자도 나우미 평점도 투명해지면서 사용자가 늘고 있다. 이에 청소와 설거지, 빨래 등 집안일을 대신해주는 가사도우미 연결 스타트업이 증가 추세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가사도우미 시장은 2020년까지 약 7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청소 스타트업은 최근 거대 투자를 끌어오며 관심받고 있다. 미소는 지난해에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와이콤비네이터 등으로부터 90억원 투자를 유치했고, 생활연구소는 누적 투자금액 95억원을 기록했다.

2015년 8월 설립된 홈클리닝 스타트업 ‘미소’는 스마트폰 앱으로 소비자와 가사도우미 ‘클리너’를 연결해준다. 생

활 청소나 빨래뿐만 아니라 세탁기·냉장고 등 가전 청소, 매트리스 청소, 이사 청소, 펫시팅 등 다양한 집안일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1월 기준 누적 거래액은 500억원, 누적 청소 건수는 100만건을 기록했다. 미소는 ‘3시간 청소 서비스’로 1인 가구 시장을 겨냥하며 성장했다. 현재 서울·인천·경기·대전·부산·대구·광주·울산·창원에 서비스 중이며, 2019년 말까지 10개 대도시로 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이다.

생활연구소가 운영하는 홈클리닝 서비스 ‘청소연구소’도 가사도우미인 ‘청소 매니저’와 고객을 매칭해주는 중개 플랫폼이다. 세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 연현주 대표가 만든 청소연구소는 맞벌이 가정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이 앱에서 거주하는 지역과 서비스를 원하는 일정을 선택하면 청소 전문 교육을 수료한 청소 매니저가 방문한다. 현재 서울, 인천, 수원 등 수도권에서 8000명 이상의 청소 매니저가 활동 중이다.

‘당신의집사’는 가사도우미를 직접 고용할 수 있다는 데서 차별점을 갖는다. 앱에서 청소를 원하는 방과 화장실 개

수, 시간, 장소 등을 입력하면 당일 연결할 수 있는 가사도우미를 선택할 수 있다. 가사도우미의 경력, 나이, 후기 등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다.

빨래서비스 스타트업도 속속들이 등장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모바일 기반 세탁 업체는 전체 시장의 약 0.5%에 불과하지만, 1인 가구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세탁 스타트업 ‘런드리고’는 비대면 세탁 서비스 스타트업이다. 문 앞에 런드리고가 개발한 스마트 빨래 수거함 ‘런드렛’을 두고 가면 고객이 당일 밤 12시까지 세탁물을 담는다. 런드리고는 이를 수거해 다음 날 자정까지 빨래를 완료해 다시 문 앞으로 배송해준다. 예약과 결제는 앱으로 한다. 런드리고는 지난 3월 출시 후 한 달 만에 유료 결제 고객 1000여 가구를 확보한 뒤 배달 평균 30%씩 성장하고 있다. 런드리고는 최근 서울 12개 구에서만 진행했던 서비스를 서울 전지역으로 확대했다.

모바일 세탁 스타트업 ‘세탁특공대’는 자체 개발한 통합 세탁물류솔루션으로 고객의 빨래를 처리하며 누적 매출액 100억원을 기록했다. /배한님 기자

에이스침대 롯데백화점 김포공항점에 ‘대규모 매장’

에이스침대는 롯데백화점 김포공항점에 수도권 최대 규모의 백화점 브랜드 매장을 오픈했다고 30일 밝혔다.

롯데백화점 김포공항점 5층에 위치한 에이스침대 브랜드 매장은 연면적 약 132m² (약 40평) 규모로 BMA-1150, 오파로(OPALO) 등을 비롯한 에이스침대의 대표 모델뿐 아니라 노르웨이산 명품 리클라이너 ‘스트레스리스’

가 입점해 있어 숙면과 휴식을 중요시하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다양하게 충족시킬 예정이다.

에이스침대는 롯데백화점 김포공항점 오픈을 맞아 사은품 증정 프로모션도 실시한다. 100만원 이상 구매 시에는 베개속통세트(30명 한정), 300만원 이상 구매 시 2인 식사권(20명 한정)을 증정한다. /김승호 기자